

가축분뇨처리시설 미가동 설비 행정조치

익산시 예산삭감·재가동 명령 등 강력대응

익산시가 왕궁면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의 일부 설비를 가동하지 않고 예산을 받아간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예산 삭감과 재가동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행정대응에 나섰다.

시는 불필요한 시설 설치로 예산을 낭비했다는 일부 지적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재가동을 통해 수질을 더욱 깨끗하게 정화시켜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5일 시에 따르면 왕궁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자가 SAB설비를 가동하지 않고 가동한 것처럼 예산을 받아간 것을 확인하고 예산 삭감과 재가동 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SAB설비는 민간투자사업자가 민간 제안으로 설계한 1차 처리 설비인 약품집진전처리시설을 대체(代替)하는 설비다. 응집침전시설의 오염물질 1차 처리 기능을 하면서 폐비 및 액비생

산능력을 갖춘 것으로 지난 2006년 '가축분뇨의 이용에 관한 법'에 따라 예산이 민간투자사업자에 자원화 공법을 제안해 실증실험을 통해 채택된 시설이다.

SAB설비는 조대 협잡물 제거 장치 후단에 설치되어 반입된 가축분뇨의 유기물(BOD 53%) 및 암모니아성 질소를 39% 감소시키며 발생하는 부유물질(SS성분)은 미세 협잡물 처리기에서 화학약품 없이(무약주) 탈수시켜 폐비의 원료로 농가에 무상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설비다.

그러나 이 설비가 가동되면서 액체 온도가 60°C 이상 유지되며 발생하는 수증기에 악취성분이 다량 포함되면서 수차례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단점이 있었다.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 사업자는 지난 2014년 익산시와 사전협의 없이 SAB시설의 가

동을 전면 중단하고 약품용집으로 그 기능을 대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SAB가동 중단이후에도 악취배출허용기준이 계속 초과되면서 민간투자사업자는 설계 잘못을 인정하고 사업자 부담으로 수억 원을 투입해 탈취 설비를 설치, 액상축매공법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익산시는 사업자에 대해 SAB시설 재가동을 수차례 권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4차례 재가동명령을 하고 불이행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했지만 전주지방법원 행정처분은 기소 유예처분을 내렸다.

익산시는 민간투자사업 사용료에 포함된 SAB설치 및 운영비용을 삭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삭감한 예산은 7억8600만원에 이른다.

이에 불복한 사업자는 2017년 9월 전주지방법원에 '재가동명령 취소' 등의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으며 2월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했으며 아울러 재가동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SAB시설은 화학약품 투입 없이 가축분뇨를 1차 처리 하여 폐비 및 액비로 재활용 할 목적으로 익산시와 민간투자사업자가 협의해 설치한 시설로 사업자 일방적으로 가동을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며, 1심 재판부 판결도 "가축의 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기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에 해당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필요 없는 시설이 설계에 반영돼 예산이 낭비된 결과를 초래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의 철저한 운영·감독을 통해 새 만큼수질보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은 언급했던 해당의원도 "SAB 미가동을 질책하기 위한 내용이 었다며 본 뜻과 다르게 와전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익산시 성당포구마을이 전북도에서 주관한 제6회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소득체험분야 '희망마을상'을 수상했다.

익산 성당포구마을, 생생콘테스트 '희망마을상'

2017년 이어 2관왕... 최고 소득·주민 참여 등 높게 평가

익산시 성당포구마을이 전북도에서 주관한 제6회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소득체험분야 '희망마을상'을 수상했다.

시는 매년 열리는 전북도 생생마을 콘테스트에 특색 있는 마을들의 출전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전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성당포구의 좌도 농악팀이 출

연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이로써 성당포구마을은 지난 2017년 소득체험분야 행복마을상 수상에 이어 올해 희망마을상을 수상해 마을만들기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득체험분야에서 2관왕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성당포구마을은 지난 한 해 동안 2만여 명이 방문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체험휴양마을로 지난해 약 2억원의 매출

을 달성했다. 이는 식재료 공급부터 사무장 채용, 기타 단기고용 일자리까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주민 모두가 균등하게 출자하는 방식으로 높은 소득을 창출함에 따라 주민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

가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최근에는 슬로푸드 마을로 선정되면서 관광객들이 연이어 방문하고 있으며 마을사업 우수사례로 꼽히며 전국에서 이곳을 벤치마킹하는 방문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익산시 중간지원조직인 농촌활력지원센터에서는 성당포구 체험휴양 마을이 자립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컨설팅을 지원해 줌으로써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 중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준공식

5년간 72억원 들여 공동작업장, 마을카페 등 구성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시는 지난 5일 중동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중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은 김임준 군산시장, 박용진 중앙동장, 김정현 중앙파출소장 등 기관 및 단체장과 김정화 중동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위원장, 중앙동주민자치위원장,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중동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준공을 축하했으며, 주민노래자랑 등 마을잔치를 더해 축제분위기를 조성했다.

중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중동 서래마을이 가지고 있는 고유역사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으

로 2015년부터 5년간 7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주민 모두가 이용 가능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기초생활기반시설인 공동주차장과 소공원, 다양한 가로경관정비사업 등의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추진됐다.

특히 중동복합커뮤니티센터는 지상 2층, 연면적 495㎡ 규모로 1층은 마을주민들을 위한 공동작업장, 마을카페 등으로 구성됐다.

중동 주민들로 조직된 서래포구마을에서 위탁운영을 하며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2층에는 작은도서관이 들어오게 되어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중동지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완공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문화, 생활편의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당산제와 서래장 등 역사와 전통이 있는 중동지역이 새롭게 조성된 변화들과 조형물 등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찾는 군산시의 새로운 명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는 지난 5일 중동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중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익산시보건소, 위생해충 방제 강화

익산시보건소는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적·환경적 특성에 적합한 환경친화적 위생해충 방제사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존 방역기동반 2개 반을 주·야간 4개 반으로 추가 편성해 하절기 집중방역기간인 7월부터 2달간 주 2~3회 다중이용시설, 민원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야간방역을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민원이 잦은 동지역에 9대의 위생해충 포충기를 추가로 설치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방역소득 방식을 기존 경유에 살충제를 희석해 살포하는 가열 연막소득 대신 물에 살충제를 녹여 분사하는 가열 연무소득으로 변경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통장 회의 시 변경된 방역방법에 대한 홍보와 전광판 송출, 보도자료 게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장 박철원 의원과 시민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6개 부서(시민안전과, 청소자원과, 하수도과 등)가 지난 4일 보건소 상황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해 방제환경 개선에 대한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시, 자매도시 김천시 우수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자립도시 군산시는 자매 도시인 경북 김천시의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최한다.

오는 23일 시청 광장에서 열리는 군산시-김천시 우수농산물 교류 판매 직거래 장터는 두 자매도시의 교류를 확대하고 김천시 농민들의 판로 확대와 군산시민의 알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직거래행사 품목은 김천시에서 출하된 포도와 자두, 복숭아 등으로 행사 홍보와 구매촉진을 위해 읍면동, 유관기관, 농업인단체 등 사전주문을 접수받고 있다. 관심 있는 군산시민 누구나 오는 15일까지 읍면동 및 농산물유통과로 사전주문이 가능하다. 자매도시 간 직거래 장터는 유통에

따른 마진을 최소화하고, 품질까지 뛰어난 것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김천시 우수농산물 홍보를 위해 김천시 시장 및 김천시의회에서도 군산시를 방문예정이다.

지난해 직거래 행사에서는 시민들의 뜨거운 참여 속에 예약된 사전물량을 포함해 2,400여 상자를 판매하는 실적을 거둔 바 있다.

오는 9월 예정된 김천시 방문 행사에는 김임준 군산시장, 김경구 군산시의회 의장, 농업인단체장 등 20여 명의 군산시 대표단이 김천을 찾아 군산시의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김천시인 대상 만족도조사로 군산 우수 농특산물을 판매 및 홍보에 힘을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